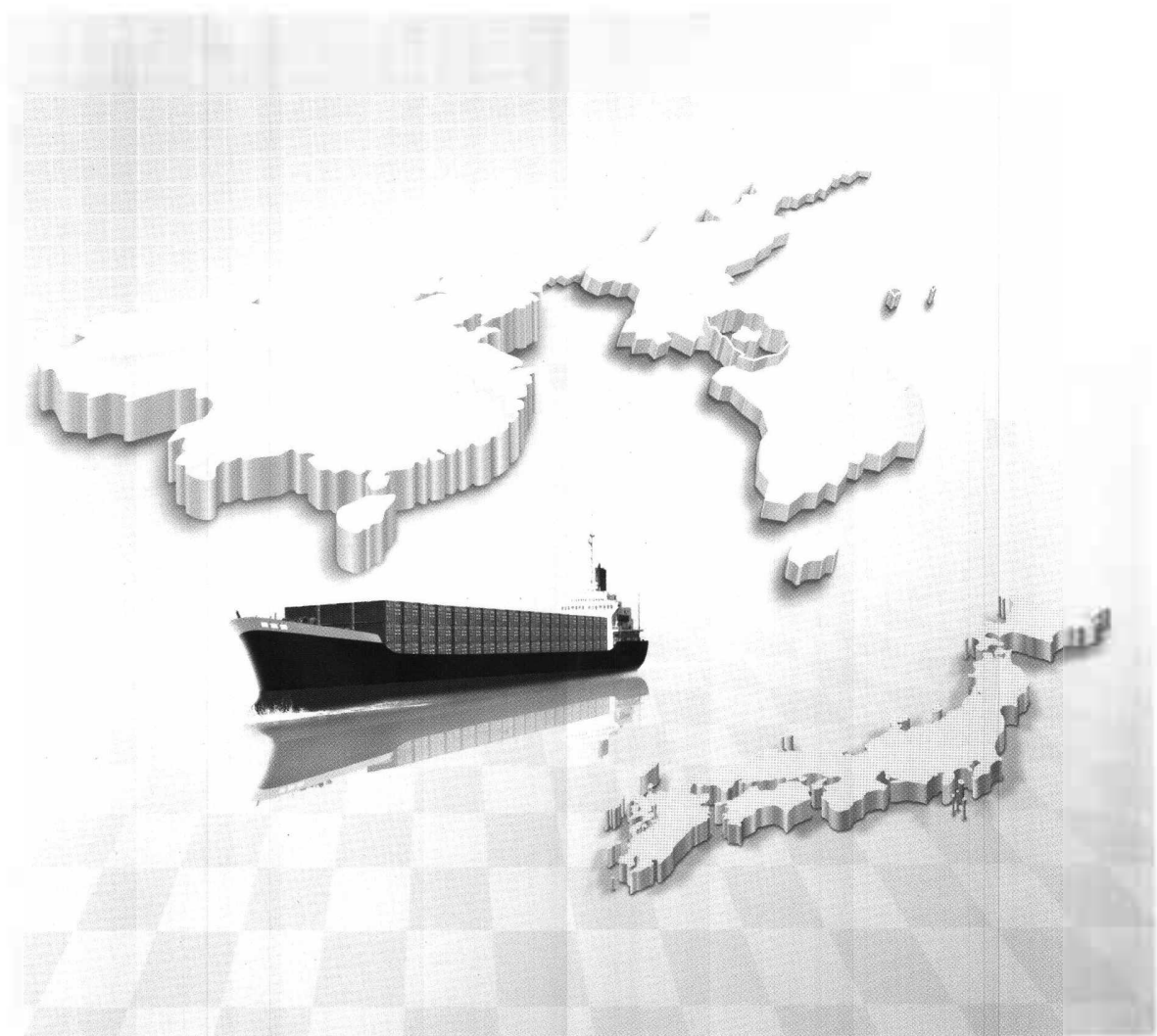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표준분야 상호 협력 모색을 위한 장

지난 4월, 중국 청두(成道)에서 한·중·일 정부 간 표준협력회의와 3국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제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이 열렸다.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은 3국이 국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표준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제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제 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사천성의 청두(成都)에서 열렸다. 원래 이 포럼의 개최지는 중국 충칭이었다. 그러나 중국 내부 사정으로 개최지가 갑자기 변경됐다. 갑자기 개최 도시를 변경했음에도 단 며칠 만에 국제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중국을 접하며 이 나라의 통제성과 일사불란함을 새삼 느꼈다. 이는 필자만의 느낌이 아니었다. 회의 후 만찬에서 한 일본 대표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의를 완벽하게 진행한 중국 주최 측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했으니 말이다.

민간주도의 표준협력 활성화 목적으로 개최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은 동북아의 세 축인 한·중·일이 이 지역에서 표준협력 공조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의 주체는 민간단체인 한국표준협회(KSA), 중국표준화협회(CAS) 및 일본규격협회(JSA)다.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은 2010년 5월 30일 발표된 한·중·일 3국 정상외 '표준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간의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는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과 정부 간 각국간 '표준화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개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포럼은 민간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정부 협력 하에 연간 주제의 분야별 표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보기술 및 전자 부문 한·중·일 표준협력 협의체인 CJK Standards Cooperation on IT and Electronics(CJK SITE)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총 20여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민간에서는 한국표준협회 김창봉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최식에서 최형기 국장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시의 표준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발언으로 이 포럼의 당국적 지향성을 밝혔다.

포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각 나라 표준화 현황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현재



▲ 지난 4월 개최된 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에서는 동북아지역 무역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 최형기 국장은 기조사에서 '지커사에 김이' 남을 지역 표준협력의 모델은 만들어 보자'며 포럼의 시행선을 확인시켰다



▲ 기표관 주수령 국장은 지구 한국의 주요 표준화 활동 및 산체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진행 중인 계속협력과제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각 나라에서 신규 협력과제를 제안했다.

표준 선점에 대한 각국의 강한 의지 확인

3국 표준화 현황 발표에서는 기술표준원 주소령 과장이 최근 한국의 주요 표준화 활동 및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 코디네이터 제도, 교통카드 전국 표준화 사업을 예로 든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표준화 사업, 표준과 연구개발 연계 전략 및 표준화 교육 등이었다. 한국의 발표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교통카드 표준화와 연구개발 연계 전략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 참가자는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교통카드 부문에서 어떻게 표준화될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우리나라의 발표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은 표준화 활동의 개괄 내지는 기관 활동에 대한 소개에 그쳐 한국 참가자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후 계속협력과제에 대한 보고와 신규 협력과제가 제안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과제는 모두 20개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나라가 주도하는 몇 개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포럼의 목적,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고령친화용품 국제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WG2)은 보조기구·한·중·일 표준화회의(CJK-Standardization Meeting for Assistive Products: CJK-SMAP)라고도 불린다.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다양한 보조 용품 생산과 무역에 사용될 표준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가 주도하는 WG2는 네 개의 하위 워킹그룹(휠체어 자세 변환, 자세변환 용구, 안전 손잡이 및 보조 보행차)으로 나뉘어 각국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자세변환 용구 그룹은 3국이 협력하여 공동의 신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는 5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ISO/TC 173 총회에서 자세변환 용구의 신규 제안을 제출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용품을 중 국제 표준 선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10개의 새로운 협력과제도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7개가 중국 것이었다. 이는 포럼 개최지가 중국이란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스마트 녹색교통서비스 공동표준 개발을 제안했다. 일본은 스마트홈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협력을 제안했다. 중국이 제안한 7개 협력과제 중에는 상품 인관수송을 위한 평판레트(Flat Pallet)의 아시아 표준 시스템 구축과 무역금융정보서비스에 관한 한·

중·일 협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준에 존재하는 지역 또는 국제표준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협력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무역금융정보서비스에 대해 “EU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와 배치되지 않느냐”라는 일본 대표의 질문이 시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 세안자직: “EU 중심의 표준화는 중국의 분류와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CJK SFTB 및 동북아표준포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화의 영역(예: 스마트 그리드 등)뿐만 아니라 기존 표준 영역에 있어서도 자국이 주도하여 지역 및 국제표준화의 새로운 틀을 짜려고 의도하고 있다. 신규 제안 발표자들 대부분이 “우리의 제안(국제표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때)을 지지해 주기 바란다”라는 발표 발표를 바랐다. 전에서도 포럼 참여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가정용 로봇 플랫폼 표준을 제안한 중국 발표자는 정중의 마수를

유도하면서 마치 정치 선동문을 읽는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해 참석자들은 중국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었다.

한·중·일 FTA 논의에 대비한 방안 시급

표준화, 특히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자로서 이번 동북아표준포럼 참관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한·중·일 표준협력의 현상을 통해 작가는 동북아표준포럼의 향후 과제 및 리더십 등의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크게는 지역 표준협력의 모델 수립이라는 목표와 현재 활동 중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한·중·일 FTA 또는 한·중, 한·일 또는 중·일 양자 FTA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때를 맞이하여 CJK SFTB를 비롯한 한·중·일 표준협력체, 특히 동북아표준포럼의 위상과 과제에 대한 방향 세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포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T&S**



▲ 이번 동북아표준포럼 포럼은 한·중·일 표준협력의 주요과제에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